

# 무주·영동·김천 '한자리에'

###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성황 3도 관계자 1500여 명 참석

무주문화원이 주관한 제28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 10일 설천면 미천리 삼도봉 정상(1,176m) 대화합 기념탑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북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 주민들이 화합하고 지역의 공동발전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박보생 김천시장과 박세복 영동군수,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등 3개 시·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무주문화원 김내생 원장 등 3개 시·군 문화원장과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초헌례와 아헌례, 종헌례를 함께하며 삼도화합을 기원했으며 기념 공연을 즐기며 산행의 노고를 달랬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삼도봉 만남으로 똘똘 무주와 김천, 영동이 산골마을 행복버스 운행과 오지마을 농어촌 생활양식 개발 등의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나가고 있



다"며 "3도 시·군의 인연이 지역경제를 넘어 화합의 상징이자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20만 시·군민의 마음과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1989년 무주군의 제1회 시작된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삼도봉 지역행복생활권 공동발전 사업의 기반이 되면서 타 지자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무주와 영동, 김천시는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 버스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

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 지난 9월에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편, 2009년 5월에는 ▲삼도봉 권역의 공동발전계획 수립과 시행, ▲기초생활권 및 광역개발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문화·예술·축제·관광·체육·경제·사회 등 전 부문에 대한 교류와 협력, 후원을 강화해 나갈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수상

### 지속가능성 평가 도시대상서

무주군이 '2016년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도시대상'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을 수상했다.

무주군은 방재안전과 사회복지, 문화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도시사회부문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3944(구석구석 삼삼이) 희망 모니터단' 등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반딧불이를 테마로 공공건축 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해 청정한 지역이라는 정체성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1996년~2006년까지 공공건축물의 설계 권한을 주민·건축가(故 정기용 건축가)에 위임해 무주군청과 안성면자치센터, 부남면자치센터, 적상면자치센터, 무풍면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과 공정리 초등학교, 등나무운동장,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등 30여 곳에 대한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평사초청 HAPPY 365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문화 콘텐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건설교통과 조영자 도시개발 담당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의 관계분야 전문가들의 엄정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 상을 받게 된 만큼 무주가 청정 도시,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 같아 기쁘다"며 "주민 행복과 삶의 질이 곧 지역경쟁력의 척도라는 생각으로 도시공간과 더불어 내적 인프라를 가꾸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6년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것으로, 한 해 동안 도시공간과 연계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게 주는 상(賞)이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7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된 '도시의 날' 행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올해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지표 의무평가와 87개 지자체가 참여한 응모지표 평가를 합산해 수상도시 14곳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국립블리스

### 진안군,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진안군은 10일 이향로 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및 전 담당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 증진을 견인할 2017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 직원들이 동참하여 주민 행복을 위해 발굴한 179건의 신규시책 중 1차로 선정된 71건의 시책에 대하여 운영방향과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시책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계획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각 부문별 제안자에 대한 표창 및 부상을 오는 12월 월례조회 때 수여기로 했다.

이향로 군수는 "발굴된 시책은 부서간 유기적인 협업과 소통으로 추진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홍삼축제 행사기간

### 우수축산물 홍보활동 펼쳐

진안군이 마이돈 테마파크에서 열리는 2016 진안홍삼축제 행사기간(5일간) 동안 진안고원 우수축산물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소비촉진을 나선다.

이번 행사는 무진장축회 등 관내 8개 업체가 참여해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홍삼한우, 진안돼지, 요구르트, 흑돼지돈가스, 꿀, 화분, 홍삼소금, 꿀빵, 구운 계란 등을 시식 및 할인 판매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축산물의 시식 및 체험, 할인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며 "진안고원에서 생산되는 청정 축산물을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선보여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영호남 서각교류전 개최

진안군 제7회 서각교류전 기념식이 10일 진안군 관광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개최됐다.

홍삼축제 기간 중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사)한국서각협회 진안지부(회장 임채순)와 경북지부(회장 이영복)가 함께 참여하여 영호남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진안지부에서 28점, 경북지부에서 10점을 출품했다.

이향로 군수는 "서각은 우리 민족의 숨결이 살아있는 생활문화이며 평면적인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입체적인 공간 표현으로 격상시키는 종합예술"이라며 "이번 교류전이 영호남 간 정서적으로 왜곡된 유리벽을 허무는 계기로 진안이 교류의 중심역할을 하게"라고 말했다.

2016년 서각교류전은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진안군 관광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열린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

### 어린이집 차량 안전교육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주계파출소는 지난 10일 무주읍 어린이집 학생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교육은 출발 전 학생운송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 점검 및 규정 속도 준수 등 안전하게 운행해 줄 것을 당부 했으며, 학생들에게도 안전띠 착용, 차내 소란행위 금지 등 안전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최성규 무주경찰서장은 "학생운송버스 차량사고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의 요청이 있으면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음주여부 점검 및 교통안전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깊어가는 가을, 태권도원으로 떠나자

### 여행주간 맞아 무료입장 주말 공연 등 행사 다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가을 여행주간(20일~11월6일)을 맞아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기간, 태권도원에서는 무료입장과 주말 특별공연, 온라인(블로그&SNS) 연계 이벤트 등 방문객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고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입장료를 얹어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태권도원 이용은 10시부터 18시(주말은 19시 / 종료 1시간전까지 입장)까지로 태권도 시범과 특별공연, 국립태권도박물관 등을 자유롭게 관람하고 산책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기간 중 주말(4회 / 29~30일, 11월5~6일)에는 특별공연 'The Great Change, 진(천) 혜(공) 왕국 태권도원'이 진행된다. 이 공



연은 태권도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 공연으로 "태권도와 한글, 전통 무용, 퓨전국악"이 융합된 매력적인 태권도 창작문화공연이다. 화려한 액션과 라이브 뮤직, 관객과 함께하는 참여형 체험극으로 태권도원을 찾은 관광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블로그&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태권도원에서 촬영한 여행 인증샷을 태권도원

SNS를 통해 공유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현 사무총장은 "가을 여행주간에 태권도인을 비롯해 온 가족이 태권도원을 방문하기 바란다"며 "다양한 이벤트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가득한 태권도원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책 향기, 배움의 향기로 완주하다'

## 완주군 '북적북적 페스티벌' 15일 개최

완주군은 오는 15일 군청 야외무대와 중앙도서관 일원에서 '책 향기, 배움의 향기로 완주하다'라는 주제로 2016 평생학습, 북적북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해에 이어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북적북적페스티벌은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제도서관에서 추진해온 인문독서 프로그램과 한 해 동안 평생학습 강좌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학습결과가 발표된다.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75세 넘는 늦깎이 어르신들의 배움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문화골든벨'과 할머니들의

진실한 삶을 감동적인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시화 작품전'이 열린다.

도서관 분야에서는 '덕혜옹주' 북콘서트, 휴먼 라이브러리,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구연동화, 신기한 과학마술 및 그림자 인형극, 휴먼스 공연, 청소년 댄스동아리 공연, 공공도서관 및 독서회 전시 및 체험 부스 등이 진행된다.

특히 최근 영화 개봉으로 다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장편소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저자 권비영 씨를 북콘서트에 초청해 '덕혜옹주' 뒷이야기 및 최근 근황, 독자와의 대화 시간, 도서 사인회 등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지자체 최초 '청년 오디션 취업캠프' 운영

완주군이 지자체 최초로 청년오디션 취업캠프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완주군 기업에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40명을 선발해 3일간 전문가의 특강 및 멘토링은 물론,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까지 이어지는 오디션캠프 진행으로 청년취업역량 강화의 계기

를 마련했다.

이번 청년오디션취업캠프는 (주)아시아, 미원상사, (주)푸르름, (주)한국프라임제약, IS엘트론, 우석대학교 등 지역 내 20개 우수기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데 주력했다.

특히 201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인센티브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완주군 내 지역 기업의 현황을 이해하고 숨겨진 기업들의 우수성을 홍보해 지역 우수인재들과의 연계를 통한 구인, 구직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한편 군은 지난 7월 우석대학교 취업지원센터와 컨소시엄을 체결해 '완주군 청년고용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장수읍, 태풍 '차바' 피해농가 지원 나서

장수읍사무소는(읍장 박인호) 10일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사과 농가를 방문해 군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 40여명의 직원들이 긴급 투입하여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에 힘썼다.

이번 복구지원은 태풍피해로 큰 시름에 잠겨 있는 사과농가를 방문해 태풍에 쓰러진 사과나무와 함께 낙과를 처리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윤섭 부군수도 "피해농가를 방문해 위로와 함께 피해복구에 애써달라"고 격려했다.

피해농가 이모(57, 장수읍) 씨는 "태풍으로 인해 사과나무가 도복되어 빠른 복구가 절실했으나, 일손이 부족해 피해복구에 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군에서 찾아와 신속하게 도와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장수경찰, 장애인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지난 7일 장수읍 장수읍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회관을 찾아 장애인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보행자가 대부분인 장애인들에게 보행자가 꼭 지키고 숙지해야 할 교통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실

시했으며, 내용으로는 보행자 3원칙(길을 건너기전 서서 좌우를 살피고), 보다(건널 때는 차가 오는 방향을 보면서), 걷다(뛰지 말기), 야간 보행 시 주의사항과 사고예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장수=고판호 기자